

2020년 2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19 일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 골드만삭스, 코로나 19 로 올해 기업이익 0% 증가에 그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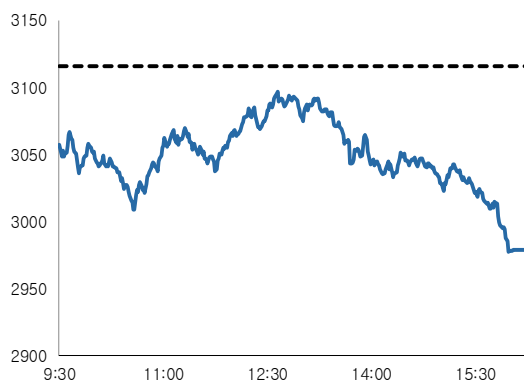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밸류에이션

미 증시는 코로나 19 로 인해 기업이익 훼손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 특히 지난 19 일 고점 대비 10% 넘게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진 양상. 한편, 급락 후 밸류에이션 안정에 기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프랑스 확진자 급증, 캘리포니아주 8,400 명 모니터링 발표 등 코로나 우려는 지속되며 재차 하락폭을 키우는 등 변동성 확대 속(다우 -4.42%, 나스닥 -4.61%, S&P500 -4.42%, 러셀 2000 -3.54%)

MS(-7.05%)가 전일 장 마감 후 코로나 19 로 인해 공급망이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정상화 되고 있어 이번 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발표. 이 결과 MS 는 7% 넘게 급락했으며, 애플 등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하며 나스닥은 4.6% 급락.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해 전년 대비 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골드만삭스는 코로나 19 로 인해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 수출품의 수요가 부진 할 것을 감안했다고 주장. 여기에 만약 코로나 19 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확산 될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실적 둔화 우려가 커졌다고 발표.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올해 S&P500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점을 감안 골드만삭스 발표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한편, 지난 19 일 S&P500 12 개월 Fwd PER 은 IT 버블 시기 이후 가장 높은 19 배를 기록. 이런 가운데 MS 등의 실적 경고는 결국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를 자극. 이후 미 증시는 코로나 19 를 이유로 매물이 출회 되었고, 오늘도 나스닥이 4.6%, S&P500 이 4.4% 급락. 이 결과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S&P500 12m Fwd PER 이 5 년 평균인 16.7 배에 근접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 이 지점 이후 지수는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 다만, 코로나 19 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한 가운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나 테슬라(-12.81%) 등의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54.89	-1.05	홍콩恒生	26,778.62	+0.31
KOSDAQ	638.17	-2.51	영국	6,796.40	-3.49
DOW	25,766.64	-4.42	독일	12,367.46	-3.19
NASDAQ	8,566.48	-4.61	프랑스	5,495.60	-3.32
S&P 500	2,978.76	-4.42	스페인	8,985.90	-3.55
상하이종합	2,991.33	+0.11	그리스	768.83	-5.24
일본	21,948.23	-2.13	이탈리아	22,799.37	-2.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하락 지속

MS(-7.05%)는 실적 경고 여파로 하락했다. 최근 애플(-6.54%)에 이어 대형 기술주 중 하나인 MS의 실적 경고는 그동안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알파벳(-5.43%), 페이스북(-3.78%), 아마존(-4.81%) 등 여타 기술주도 동반 하락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인텔(-6.40%), AMD(-7.33%), NVIDIA(-5.57%) 등도 하락했다. 그러자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테슬라(-12.81%)도 전일 발표된 파나소닉과의 태양광 파트너십 종료 이슈를 이유로 급락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65% 급락했다.

한편, 아메리칸에어라인(-7.66%), 델타항공(-2.82%), 제트블루(-4.96%)는 도이체방크가 코로나 19 우려를 기반으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을 발표하자 하락했다. 엑손모빌(-6.02%), 코노코필립스(-7.90%)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했다. JP모건(-4.16%), BOA(-4.90%), 씨티그룹(-5.47%), 웰스파고(-3.78%)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6.55%	대형 가치주 ETF(IVE)	-4.28%
에너지섹터 ETF(OIH)	-5.59%	중형 가치주 ETF(IWS)	-4.21%
소매업체 ETF(XRT)	-2.81%	소형 가치주 ETF(IWN)	-3.71%
금융섹터 ETF(XLF)	-4.27%	대형 성장주 ETF(VUG)	-4.80%
기술섹터 ETF(XLK)	-5.39%	중형 성장주 ETF(IWP)	-3.5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53%	소형 성장주 ETF(IWO)	-3.44%
인터넷업체 ETF(FDN)	-3.27%	배당주 ETF(DVY)	-2.70%
리츠업체 ETF(XLRE)	-5.65%	신흥국 고배당 ETF(DEM)	-2.38%
주택건설업체 ETF(XHB)	-2.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1%
바이오섹터 ETF(IBB)	-4.17%	미국 국채 ETF(IEF)	+0.49%
헬스케어 ETF(XLV)	-3.40%	하이일드 ETF(JNK)	-1.41%
곡물 ETF(DBA)	-1.41%	물가연동채 ETF(TIP)	+0.29%
반도체 ETF(SMH)	-4.61%	Long/short ETF(BTAL)	-0.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39.30	-5.47%	-17.47%	-18.26%
소재	334.70	-4.66%	-12.02%	-10.11%
산업재	625.79	-3.79%	-11.52%	-10.55%
경기소비재	922.88	-4.07%	-11.95%	-6.27%
필수소비재	607.86	-4.07%	-8.28%	-6.30%
헬스케어	1,091.03	-3.33%	-9.31%	-8.05%
금융	452.33	-4.37%	-12.12%	-9.73%
IT	1,537.12	-5.33%	-13.81%	-9.88%
커뮤니케이션	170.87	-4.05%	-10.91%	-8.46%
유틸리티	324.63	-4.69%	-8.89%	-6.86%
부동산	233.62	-5.59%	-9.71%	-5.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9% MSCI 신흥 지수 ETF 는 2.40%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3,955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1.75pt 하락한 276.0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1.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기업이익 훼손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패닉이 있었지만, 밸류에이션 안정에 기반해 장중 한 때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안정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도 오늘 조정을 보인다면 밸류에이션 우려가 일부 해소 될 수 있어 미 증시 하락폭보다는 안정이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해 미국 등에서는 한국이 5 만 건이 넘게 검진하는 등 진단 능력이 탁월해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 수 급증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의 검진 사례는 400 여건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는 확실히 되는 환자들만 검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숨겨진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추경을 논의 한다. 지난 2015 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 조원을 편성 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각국이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추경을 비롯한 부양정책이 발표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및 밸류에이션 안정에 기반해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4Q GDP 성장률 수정치 2.1%

1 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2% 감소해 지난달(mom +2.9%) 보다 부진했다. 그러나 예상(mom -1.2%)을 상회했으며, 변동성이 큰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9% 증가해 견고했다.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1 만건)나 예상(21 만건)을 소폭 상회한 21.9 만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은 20 만 9,750 건으로 지난주(20 만 9,250 건)을 소폭 상회했다.

4 분기 미국 GDP 성장률 수정치는 2.1%로 변화가 없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사우디가 다음 달 대중국 원유 수출이 하루 평균 50만 배럴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부담이었다. 이 여파로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인 WTI 기준 47달러까지 하락했다.

달러화는 코로나 19 우려가 확산되자 3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에 대해 과소 평가하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과 EU가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견해가 크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하락했다. CME FwdWatch는 3월 금리인하 확률을 67%로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한편, 의결권 없는 비둘기 성향의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필요하면 통화정책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근 카시카리 총재를 비롯해 일부 연은 총재들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에 동조했다. 7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2배)을 상회한 2.49배를 기록하는 등 국채 수요 증가가 이어진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금리인하 기대에 차익 매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과 경기 둔화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7.09	-3.37	-12.60	Dollar Index	98.447	-0.55	-1.42
브렌트유	52.18	-2.34	-12.02	EUR/USD	1.0993	+1.03	+1.93
금	1,642.50	-0.04	+1.36	USD/JPY	109.75	-0.62	-2.10
은	17.735	-1.00	-3.64	GBP/USD	1.2889	-0.12	+0.05
알루미늄	1,690.00	-0.35	-1.23	USD/CHF	0.9694	-0.76	-1.49
전기동	5,616.00	-0.95	-1.96	AUD/USD	0.6575	+0.47	-0.60
아연	2,012.00	-1.66	-4.73	USD/CAD	1.3388	+0.41	+0.97
옥수수	368.00	-1.74	-3.85	USD/BRL	4.4911	+0.93	+2.95
밀	527.50	-1.54	-5.68	USD/CNH	7.0094	-0.17	-0.52
대두	895.00	+0.34	-0.67	USD/KRW	1217.20	+0.02	+1.54
커피	109.75	-0.81	+4.57	USD/KRW NDF1M	1211.75	-0.04	+0.5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269	-6.82	-24.63	스페인	0.306	+5.90	+8.30
한국	1.445	+4.00	-8.50	포르투갈	0.367	+9.70	+13.60
일본	-0.105	-1.90	-6.60	그리스	1.218	+7.80	+26.00
독일	-0.543	-3.80	-9.90	이탈리아	1.072	+8.00	+16.80